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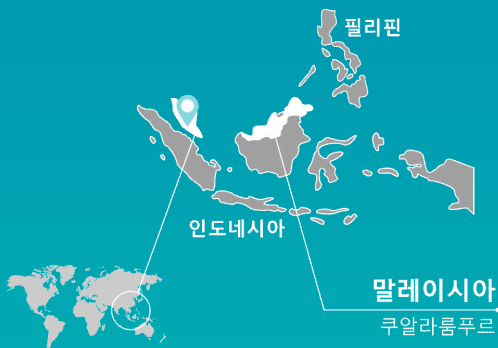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말레이시아

Federation of Malaysia

2020년 7월 27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3만 km ² 	인구 32.7백만명 (2020 ^e)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연방형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3,391억 달러 (2020 ^e) 	1인당GDP 10,477 달러 (2020 ^e) 	통화단위 Ringgit 	환율(U\$기준) 4.28 (2020 ^e) 

- 말레이시아는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그 중 11개 주는 말레이 반도 남부(서말레이시아)에 위치하며, 2개 주(Sabah, Sarawak)는 보르네오 섬 북서부(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음. 서말레이시아는 태국,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으며, 동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말레이계 62%, 중국계 21%, 인도계 7%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말레이계에 대한 우대정책(부미푸트라)을 시행해 왔음.
- 2018년 취임한 마하티르 전 총리가 2020년 2월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이후 같은 당(PPBM)의 무히딘 야신이 신임총리로 임명되어 새로운 여권연합(PN)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마하티르 전 총리가 반발하여 기존의 여권연합(PH)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당분간 정국 안정화가 필요함.
- 원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팜오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상위중소득국으로 금융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도 발달하여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기업친화적인 제도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기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왔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0. 2. 23 수교 (북한과는 1973. 7. 2)

주요협정 무역협정('62), 항공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정('83), 과학기술협력협정('86), 투자보장협정('89), 자원협력양해각서('95), 형사사법공조조약('13), 범죄인인도조약('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8,044,985	8,993,879	8,843,499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경유 등), 천연가스, 반도체, 팜유
수 입	8,714,718	10,205,684	9,279,940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철강류, 석유제품(중유 등)

해외직접투자현황(2020.3월말 누계,총투자기준) 946 건, 5,610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e	2020 ^f
경제성장률	4.5	5.8	4.8	4.3	-5.1
소비자물가상승률	2.1	3.8	1.0	0.7	0.0
재정수지/GDP	-3.1	-2.9	-3.7	-3.4	-6.8

자료: EIU

대내외환경 악화 및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 말레이시아 경제는 양호한 인프라, 풍부한 천연자원,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을 아우르는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4.5~7.4%의 견조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였으나, 2019년에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치는 등 성장 둔화세를 보이며 연간 성장률은 4.3%를 기록하였음. 이는 세계 금융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이러한 성장 둔화는 주로 미·중 무역갈등 및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우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감소 등에 기인하였음. 특히 4분기 팜유(palm oil)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음¹⁾. 또한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중도 2016년 이후 매년 꾸준히 축소돼 경기 둔화를 보여주고 있음.
 - * 2019년 GDP 구성 비중: 서비스업 54.2%, 제조업 21.5%, 광업 8.6%, 농업 7.3%, 건설업 4.7%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0년 3월 18일부터 이동제한 명령(Movement Control Order)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식료품, 의약품 등 필수품 구입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전면 금지되어 경제활동이 급감하였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산업생산, 민간소비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5월 4일 이동제한 명령을 일부 완화하고, 6월 10일에는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하였음.
- 2020년 4월 말레이시아 통계청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약 67.8%의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이동제한 명령 기간 중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말레이시아 경제는 4월 산업생산 -32.0%(전년동기 대비), 5월 제조업 PMI* 45.6을 기록하는 등 2분기 각종 경제활동이 침체되었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하였으며, 다수의 국제조사기관은 연간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2020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 전망: IMF -1.7%, IHS Markit -1.5%, EIU -5.1%)²⁾.
 - * PMI(Purchasing Manager Index)는 50점을 초과할 경우 전월 대비 확장, 50점 이하는 전월 대비 침체를 의미하여 향후 경기전망을 판단하는 지표임.

1) Malaysia Palm Oil Council 홈페이지 (<http://mpoc.org.my/>)

2)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4월); IHS Markit Malaysia Country/Territory Report(2020.6월); EIU Country Report Malaysia(2020.6월);

국내경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실시

- 2019년 5월 BNM은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여 3년 만에 기준금리(Overnight Policy Rate)를 25bp 인하(3.25%→3.00%)하고 이를 연말까지 유지하였음.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2020년 7월 현재 기준금리는 1.75%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2.00%를 넘어선 역대 최저 수준임³⁾.
- 2020년 기준금리 변동: 3.00% → (1월)2.75% → (3월)2.50% → (5월)2.00% → (7월)1.75%

경기부양 추진과 재정수입 축소로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말레이시아 정부는 농촌 지역 개발, 교육·보건 등 사회복지 확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6월 상품·서비스세율(GST)을 기존의 6%에서 0%로 조정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5년 4월에 폐지된 서비스·판매세(Service and Sales Tax: SST)를 재도입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하였으며, 대체 도입된 SST의 과세 예외 항목이 기존 GST(총 545개 품목)에 비해 약 10배에 해당(총 5,443개 품목)하여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2019년 10월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관리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재정지출 규모를 2019년 대비 6% 축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 또한, 2020~22년 중기 재정 기본계획은 배럴당 평균 유가를 60~65달러로 상정하고 석유 및 가스 관련 수익이 재정수입의 19.5%를 차지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e	2020 ^f
경 상 수 지	7,133	8,960	7,590	11,088	10,188
경상수지/GDP	2.4	2.8	2.1	3.1	3.0
상 품 수 지	24,535	27,316	29,553	31,673	30,524
상 품 수 출	165,520	186,586	206,315	197,952	170,573
상 품 수 입	140,986	159,270	176,762	166,279	140,049
외 환 보 유 액	91,194	98,938	97,788	99,467	96,581
총 외 채	168,299	177,215	184,017	193,789	197,230
총외채잔액/GDP	55.9	55.5	51.3	53.1	58.2
D.S.R.	23.4	14.0	10.6	11.0	13.7

자료: IMF, EIU, OECD

다변화된 수출품목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전기·전자제품, 원유, 천연가스, 팜유, 천연고무 등 다변화된 수출품목으로 매년 안정적인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거래를 위한 운송비 지출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 등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나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 한·일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수입 감소분이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22년 연속 흑자를 지속하였음. 이와 함께 관광산업의 성장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능력 비교적 양호

- 2013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초과한 상태이나, 70% 이상이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만기 구조가 안정적이며 대외거래가 활발하여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77%, D.S.R 11% 등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은 낮은 편임. 또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도 약 5개월 규모로 양호함.
- 외채규모가 과중하여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 링기트화로 표시된 대외채무도 외채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시 실제 외채상환능력은 외채규모에 비하여 양호함. BNM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외채의 약 1/3이 링기트화 표시 부채임.

구조적취약성

원유에 대한 높은 재정의존도

- 말레이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이 경상수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재정수입의 약 20%를 원유 및 천연가스 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현 상황처럼 경기 침체와 동시에 유가가 급락하는 경우 재정수입이 이중으로 감소되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여력이 크게 위축됨.

인근 ASEAN 주요국 대비 작은 내수시장 보유

-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가 적어(3,270만 명) 경제규모 확대 효과가 반감되는 면이 있으며, 특히 ASEAN-5 국가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중 인구가 가장 적어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2.7억 명), 필리핀(1.1억 명), 베트남(9,900만 명), 태국(6,900만 명)⁴⁾ 등 인근 주요국들의 인구 규모는 말레이시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성장잠재력

원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등 풍부한 자원 보유

- 국토의 5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천연고무와 팜유가 풍부하여 세계 주요 수출국임. 또한, 원유, 천연가스, 주석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여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함.
- 말레이시아는 세계 2위의 팜유 수출국으로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팜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 기름으로 식품 외에도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주목을 받으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천연고무의 세계 4위 수출국이면서 고무를 이용한 의료용 장갑의 세계시장 65%를 차지하는 1위 수출국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 부문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에너지 자원의 경우, 원유 생산량은 2019년 기준 1일 65.1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0.7%, 매장량은 28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0.2%에 해당해 절대 보유량은 많지 않으나 원유 순수출국임. 또한 2019년 기준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0.6%,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7.2%를 차지함.⁵⁾

다변화된 산업 포트폴리오 보유

- 말레이시아 경제는 2019년 기준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상품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이 주요 성장동력인 동시에 금융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팜유, 천연고무 등 농업 부문의 생산과 수출 경쟁력도 양호함. 아울러 원유, 주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광업도 발전하여 전 산업 부문에 걸쳐 다변화된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4) CIA World Factbook

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성장잠재력

기업친화적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여건 양호

- 2019년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27위의 양호한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공공 부문 규제 및 효율성 부문에서 8위, 재산권 부문 14위, 기업 운영 부문 5위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정부 규제, 권리 보호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 자유로운 과실송금 보장 등 제반 기업경영여건이 양호하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2019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90개국 중 12위로 매우 양호함(2019년 15위).

정책성과

장기 국가발전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비전 2030' 발표

- 2019년 10월 5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비전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 SPV 2030)'을 발표하였음. SPV 2030은 '모두를 위한 발전', '빈부 격차 해소', '단결되고 번영하는 국가 건설'이라는 3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2030년 GDP 목표를 3조 4,000만 링기트로 설정하였음.
- 이번 비전은 3개 핵심 과제 아래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 확대, 첨단산업 비중 확대, 고숙련 노동자 양성, 차별 없는 노동시장 조성, 지역간 소득격차 축소 등의 세부 추진 목표를 수립하였음. 한편, 제시된 GDP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평균 4%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전제하고 있어 최근의 성장률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시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난 2~3월에 걸쳐 총 2,950억 링기트(GDP의 20.3%) 규모의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 경기부양 패키지 중 450억 링기트(GDP의 3.0%)만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에 해당하며, 이외에는 BNM 주도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상환유예 조치(1,000억 링기트), 기업들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제공(500억 링기트)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코로나19 사태 및 이동제한 명령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야신 총리는 6월 5일, 350억 링기트 규모의 '단기경제회복계획(short-term economic recovery plan)'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안에는 초기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투자 펀드와 매칭시키는 투자기금 조성, 말레이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최대 15년간의 세금 면제 등이 포함됨.

정치동향

마하티르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후 무히딘 야신 총리 취임, 정국 안정화 노력

- 2018년 5월 취임한 마하티르 전 총리는 2020년 2월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마하티르 전 총리와 같은 말레이시아원주민당(PPBM) 소속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무히딘 야신이 3월 1일자로 총리로 임명되었음. 야신 총리는 마하티르 전 총리 재임 중 소속정당인 PPBM을 연립집권정부인 희망연대(PH)에서 탈당시켰으며, 이에 반발한 마하티르 전 총리는 사퇴 후 새로운 연립정부 수립 및 총리 재취임을 노렸으나 무산되었음.
- 야신 총리는 PPBM 외에도 기존에 야당이었던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음. 기존 여당연합인 PH가 야당이 됨에 따라 야신 총리가 하원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마하티르 전 총리가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야당연합이 된 PH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불신임안 투표 및 총리 실각 등이 우려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야신 총리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이동제한 명령과 경기부양책 등 주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정치적으로 별다른 잡음 없이 정국을 이끌고 있음. 2020년 7월 13일 야신 총리 취임 후 첫 정기국회가 개최하였으며, 이에 앞서 여당연합 내 최대 정당인 UMNO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야신 총리에게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야당연합인 PH가 분열되어 있어 정기국회 중 불신임안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사회동향

말레이계 우대 정책 '부미푸트라' 강화 추진

- 2020년 7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Bumiputera)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Bumiputera Prosperity Council)를 구성한다고 발표하였음. 동 위원회는 '공동번영 비전2030'의 일부로, 부미푸트라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은 말레이계 원주민(62%)과 중국계(21%) 및 인도계(7%) 이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중국계가 경제를 장악하여 원주민인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음. 1969년 부의 편중으로 인해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에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1971년부터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실시해 왔음.
- 부미푸트라 정책은 말레이계 원주민에게 학비를 할인해 주고 기업이나 관공서의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말레이계 원주민을 고용하도록 하며 주택 구입시 할인을 해주는 등 말레이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말레이계의 교육과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있음.

사회동향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예방조치 지속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6년 6월 이슬람 국가(IS)가 자행한 쿠알라룸푸르 나이트클럽 폭탄테러 사건 이후 IS 관련자들에 대한 관리 및 체포 활동을 지속하는 등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에 의한 테러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그 뒤 추가적인 테러 사건은 발생한 바 없음.
- 말레이시아 경찰은 2019년 7~9월 중 IS의 영향을 받아 정치인 등을 상대로 테러를 계획한 16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체포한 바 있으며, 정부는 IS 가입을 목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되는 100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음.

시위·소요 사태가 드물고 사회적 안정성이 높으나, 노동자의 권리는 취약한 편

- 말레이시아에서 시위 발생 빈도는 매우 낮으며, 폭력적인 소요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대부분의 시위는 야당 측이 정부의 종교·민족 정책을 문제삼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지정된 광장이나 경기장에서 비폭력적으로 진행됨.
- 한편, 엄격한 노동 규제로 노조의 등정파업과 불법 해고 관련 분쟁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파업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매우 엄격하여 합법적인 파업이 거의 불가능함. 또한 노동부가 근거 없이 노조 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 등 노조의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자에 의한 파업이나 시위는 매우 드물게 발생함.
- 말레이시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노동자의 6%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국제관계

다양한 대외협력관계 유지

- 비동맹 중립정책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구하며 일본, 인도, 파키스탄 등 총 7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ASEAN 차원의 다자간 FTA에도 가입하였으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및 OIC(이슬람협력기구)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대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는 FTA 체결을 위해 협상 진행 중임.
- 미국과는 반테러 활동과 지역 안정에 의견을 같이 하며 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국제관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암발라트 해역 등에서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해당 분쟁 해역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양국은 모두 암발라트 해역에 해군을 파견하였음. 양국 모두 암발라트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원 탐사를 지속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군사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채 현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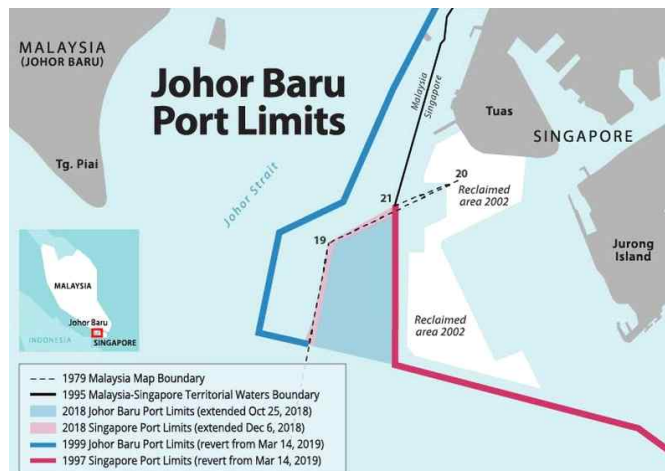
암발라트 해역 분쟁지역 지도



자료: Jakarta Post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양국 사이에 위치한 조호르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지속해왔으며,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조호르 해협 인근 조호르 baru 항의 포트 리미트(Port Limit, 선박 운항 등 관할권 행사 구역)을 일방적으로 확장하자 싱가포르는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같은 해 12월 인근 투아스 항의 포트 리미를 확장하는 조치로 대응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상선 운항이 제한될 위험이 높아졌으나,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조호르 해협 분쟁지역 지도



자료: Malay Mail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 없으며 외채상환태도 양호

- 2020년 3월말 기준 말레이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 지원액은 69.8.9억 달러(단기 17.0억 달러, 중장기 52.8억 달러)로, 연체금액이 없으며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2등급(2020.06)	2등급(2019.06)
Moody's	A3 (2017.12)	A3 (2016.01)
Fitch	A- (2018.08)	A- (2016.08)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양호한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등급 전망 부정적

- 말레이시아는 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입 기반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 이력,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건전한 금융 부문과 신뢰성 있는 규제 등에 힘입어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양호한 투자적격 신용 등급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20년 4월 Fitch는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하락, 경기부양책 확대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였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등급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 경제는 다변화된 산업 발전, 풍부한 부존자원, 시장친화적인 제도 구축 등에 힘입어 2010년 이후 꾸준히 연간 4~7%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기후 요인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2019년 성장률은 4.3%로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및 관련 이동제한 명령, 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복지 확대, 인프라 투자, 상품·서비스세(GST) 폐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방역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추가 악화가 불가피함.
- 마하티르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후 2020년 3월 무히딘 야신 총리가 신규 취임하여 정국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임. 다만 기존 정권의 주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 명령, 각종 경기부양책 등 시의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정치 안정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